한국도서관협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도서관 정책제안서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평생 배움터!**
도서관은 **국민**을 위한 **성장**의 **뿌리**입니다!

- 모든 도서관 이용자는 현재 또는 미래의 유권자입니다.
- 모든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 도서관을 위한 정책 개선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 도서관은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연결하는 평생 배움터입니다.
- 도서관은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실현합니다.
- 도서관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의 기반이며, 모든 국민을 당당한 유권자로 만들어가는 성장의 뿌리입니다.

- 도서관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사회 발전의 근간입니다.
- 올바른 도서관 정책이 훌륭한 도서관을 만들 수 있고, 훌륭한 도서관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훌륭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서관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한국도서관협회

목 차

1. 정책 제안 배경 1

2. 현황 및 정책 제안 3

3.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 도서관 정책 개선 16

- 현 정부의 도서관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24
  -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2024-2028)
- 도서관 문제, 해결할수록 행복한 도서관이 가까워집니다 28
  - 도서관 현안 기사 목록

1 정책 제안 배경

전국 문화기반시설별 이용자수(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화기반시설은 바로 도서관입니다.(2022년 기준 약 1.75억명 이용)

※ 출처 -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문학관 :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22년 기준)
- 영화관 : 영화진흥위원회 202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2022년 기준)
- 야구장 : 2023년 KBO 연감

"도서관 정책 개선이 시급합니다!"

도서관은 공동체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원하는 사회의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 연간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은 1.75억 명(「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이 넘으며, 이처럼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기관은 도서관 이외에는 없습니다(박물관 0.62억 명, 미술관 0.16억 명).
-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성장,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기관은 도서관입니다.
- 도서관의 역할 강화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도서관은 지식정보와 문화의 국가적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는 핵심 기관입니다.

-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명의 시대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식정보와 문화의 성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 도서관은 정보·사회· 문화·교육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식정보와 문화 창조의 기관입니다.
-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선진국일수록 도서관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 도서관은 지식정보와 문화의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핵심 기관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국민은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혁명 속에서 지속 가능한 꿈과 미래를 실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중심의 사회 혁신은 지적 자유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는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 일반 국민, 청년층, 고령층, 장애인, 어린이 등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차별 없이 지식정보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 하지만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은 지식정보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모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전국의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 도서관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리며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사회환경에서 도서관이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국민의 알 권리, 지적자유를 보장하도록 도서관 정책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2 현황 및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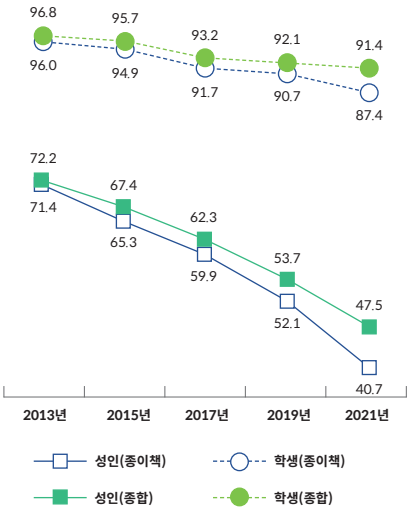
2.1 일반 국민

2.1.1 일반 국민 문제 현황

인문정신의 위기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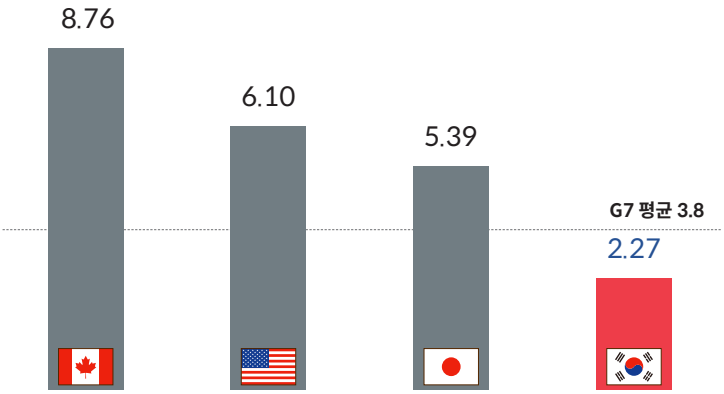
- 인문학 위기 현상은 점점 심화하는 추세(「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
  - 인문정신 부재로 인한 높은 자살률, 흉악범죄 발생, 자극적 젠더 갈등 양상 등 다양한 사회문제 증가 추세
  - 입시 지도 등의 이유로 초·중·고 제도권 교육에서의 인문정신 함양 교육에 한계 발생
  - 지역서점 소멸 위기로 인한 독서생태계 파괴 및 인문정신 위기 심화

독서율* 변화 추이(성인·학생) (단위 : %)



국민 1인당 도서 대출 수

(단위 : 권)
(도서대출권수 / 전체국민수로 계산)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율은 매우 저조하며, 국민 1인당 도서 대출 수도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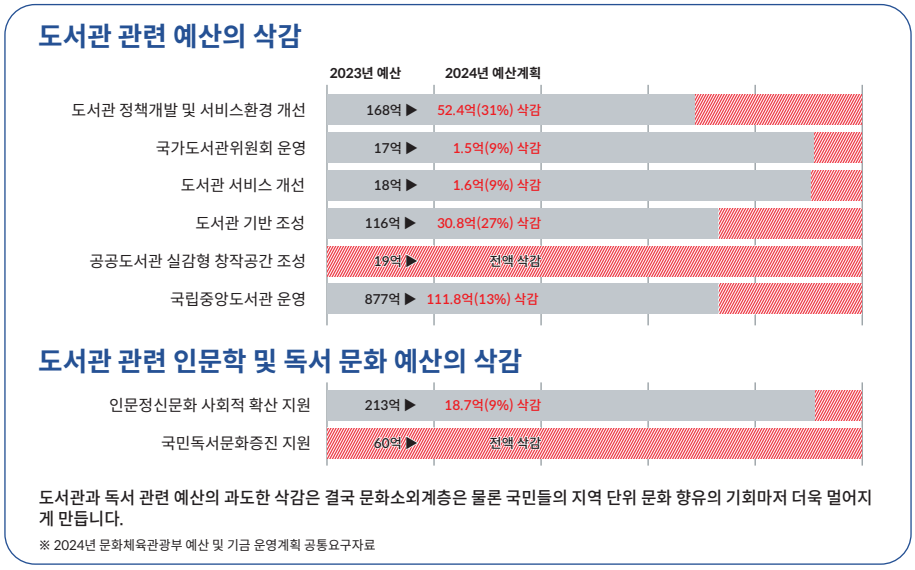
※ 출처 :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 독서율: 지난 1년 동안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
※ 출처 - 한국 : 2022년 국가도서관통계
- 캐나다, 미국, 일본 :IFLA library map of the world

공동체 파편화로 인한 사람 간의 원활한 소통이 위협받는 현상 심화

- **팬데믹,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공동체 파편화 현상 심화**
  - 재난과 위기 상황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 파편화되고 많은 사회적 관계가 파괴될 우려가 점점 커짐
  - 파편화된 사회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일로 부상함

급속한 디지털 혁명으로 지식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현상 심화

-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이 사회 각 부문에서 급속도로 진행**
  -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중심의 사회 혁신은 지적 자유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는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증가시키고 있음
  -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거나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계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음
- **지식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기본 인프라 부족**
  - 도서관은 문화시설 중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하지만, 낙후된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 구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국민의 욕구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글로벌 시대 다문화 가족과 함께 공존하는 상호존중 문화 필요

- 2022년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은 39만 가구(가구원 115만 명)로 전체 가구 대비 1.8%를 차지하며, 다문화 가족 증가가 확대되고 있음(KOSIS 국가통계포털)
-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최근 낮아지는 경향으로 다문화 가족이 겪는 일상적 차별 및 소외 심화(「2021년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
  - 2018년에 비해 청소년은 상승하고 성인은 하락, 청소년과 성인 간의 격차가 더 커짐
  - 코로나 19 이후 '외부에 대한 개방성'이 떨어지며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 영향

2.1.2 일반국민 정책 제안

도서관을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핵심 문화기반 시설로 규정

- 중앙 및 지방 행정기구에 도서관을 국민의 인문정신 함양과 지식 문화 창조의 핵심 문화기반 시설로 지정하고 관련 부서 운영 정책에 반영
- 도서관의 풍부한 인문학 장서, 알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서, 지역 단위의 인물 자원을 연계한 협업 체제 마련으로, 지역 공공도서관을 인문학 중흥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필요
-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활 밀착형, 지역 친화적 인문활동 모델 구축
- 지역도서관-출판-서점간 지속 가능한 미래 협력모델 개발 및 출판유통 협업체계 구축
  - 공공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법 제도화 및 연대서비스 발굴, 협력 사업 추진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 파편화된 사회관계 회복을 위한 공동체 환경을 지역에 촘촘하게 설치된 공공도서관에 구축하는 전략 필요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 공동체 연계 추진을 통한 주민 네트워크 기능의 강화
- 평생학습교육, 독서 활동, 동아리, 귀농·귀촌인 모임, 각종 주민자치회의 및 모임, 강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 제공 및 개방 확대로 커뮤니티 룸 구축 및 지역 생활문화모임 지원

전국 도서관의 디지털·인공지능(AI)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실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든 국민이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의 디지털·AI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 전국 공공도서관에 디지털·AI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기자재 및 인력 확보 의무화
  - 특히 농산어촌 등 낙후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AI 리터러시 교육 중심 센터화 추진
- 공공도서관 운영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과 예산 및 전문인력 확대
  -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예산 확보 및 사서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이용자 맞춤형 도서관 디지털·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전문 사서 양성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에 다문화 이용자를 위한 특화자료 운영 추진

- 다문화 가족이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 도서관에서 다문화 가족의 독서문화, 정착지원 및 시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다문화 이용자를 위한 특화자료 운영 추진
- 다문화 가족 대상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다문화 나라별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적응 교육, 다문화 가족 자녀 독서 지도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독서상담 및 치료

2.2 청년

2.2.1 청년 문제 현황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층

- 코로나 19 여파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고, 근로 형태가 비정형화되며 청년 고용의 질과 양이 낮아짐
- 이에 따라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니트 청년(교육도, 취직도, 직업 훈련도 하지 않는 청년), 구직 단념 청년, 은둔 청년 등 '쉬는 청년' 급증 (2016년 42만 명 → 2023년 50만 명)
  - 문화일보, "그냥 쉬는데요"… 구직 안 하는 청년 50만 명 '역대 최대' (2023.03.20.)
- 구직을 포기한 채 집에서 쉬는 청년 15~29세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함
  - 중앙일보, 일 쉬고 있는 15~29세 청년 32.5% "원하는 일자리 못 찾아서" (2023.11.01.)

불안과 우울함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청년층

- 청년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일자리, 주거와 같은 경제적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심리적,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되며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음
- 서울시 거주 청년 중 약 13만 명(14.5%)이 고립 또는 은둔 상태(전국 약 61만 명 추정)
  - 서울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2.12.)
- 최근 1년 동안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일에서 느끼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인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이 39.9%에 달하며, 번아웃의 가장 큰 이유는 '진로 불안'(37.6%)으로 나타남
  -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2022.12.)
- 일자리를 늘리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상담·활동 등 청년의 삶에 다면적으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지원책 필요

2.2.2 청년 정책 제안

청년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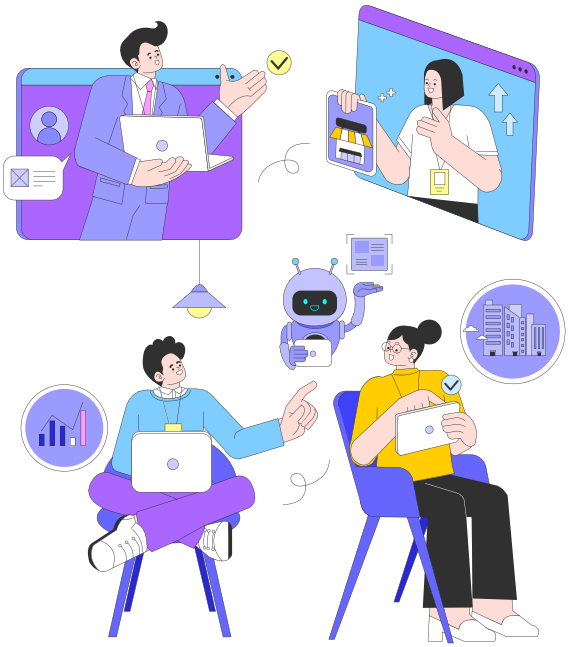
취업·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신기술 체험과 창의·협력 공간 제공

- 청년층을 위한 취업·창업 관련 간행물, 단행본 등을 최신판으로 제공
- 미디어 창작실(AR·VR 체험과 관련 개발 지원), 그룹 세미나실(창의·협력 토론) 등의 시설 확대 및 최신 기기(드론, 노트북 등) 확충을 통한 신기술 체험 공간 마련

취업·창업 관련 전문교육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확대

- 직업정보 탐색,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창업기획, 사업계획서 작성 등 취업·창업 관련 전문교육 시행
- 청년층의 디지털·AI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지역사회 내 기관과의 협업구조 마련을 통한 청년 취업·창업 중간 지원 역할 확대



청년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하는 도서관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간 허브 역할 강화

- 청년 주거 복지정책 일환인 '청년 행복주택'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청년 공동체 확대
- 청년 독서 모임 지원, 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청년도서관 등 청년의 자율적 네트워크 활동 강화 및 필요로 하는 물리적 공간 제공

청년 맞춤형 특화서비스 운영

- 진로, 주거, 창업, 마음 건강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 센터와 연계한 상담 서비스 운영
- 청년 대상 금융, 복지, 인문·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2.3 고령층

2.3.1 고령층 문제 현황

고령자 관련 통계 및 실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고령층의 빈곤

- OECD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6세 이상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남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 삶의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큼
- 누구나 반드시 새로운 제2의 직업 또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시대

고령층의 낮은 리터러시 역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다른 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에 비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게 나타남
- 배움에 대한 자신감(32.3%), 활용에 대한 자신감(30.0%)도 일반 국민보다 현저히 낮음
- 조직에 속하지 않은 개인은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에 대한 적응이 더 어려울 수 있음
- 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저하는 청년세대와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
- 최근 인공지능(AI) 리터러시의 중요성과 필요성까지 강조되고 있음

고령층의 삶의 질 저하

-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노인 인구 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6%에서 2023년 21.1%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65세 이상 노인 3,392명이 자살을 했고 이는 OECD 평균보다 2~3배 높은 수치임
- 경찰청에 따르면, 61세 이상 범죄자 수는 2018년 209,095명에서 2022년 212,765명으로 증가했지만 다른 연령대는 모두 감소함
- 정서적 지지와 함께 정신 건강관리를 위한 삶의 영역에서의 시스템이 필요함
-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아름다운 노년을 기획할 수 있음
-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해 '일하는 노년'의 삶의 기회 제공이 가능할 것임

2.3.2 고령층 정책 제안

기억에서 기록으로

- “한 노인의 죽음은 한 개의 도서관이 사라지는 것이다.”(Amadou Hampâté Bâ, 말리 출신 작가, 민속학자)
- 공공도서관 구술 프로젝트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 여정뿐만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문화, 경험과 지혜를 기록
  - 공공도서관별 구술채록단 운영
  - 공공도서관별 구술채록집 발간 및 전시 공간 마련
  - 자서전 쓰기
  - 사업의 기획과 지원, 공유를 위한 어르신 구술채록시스템 구축

고령층의 세컨드 라이프 환경 조성

-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창업 기초지식,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
- 고용 문제에 곤란을 겪는 지역민을 위한 '일하는 기분 응원 코너' 설치
- 활동적 고령층의 수요를 반영한 심화 인문 프로그램 ‘지혜학교’ 운영
- 세컨드 라이프 서가 시행
  - 정년 후 취업과 창업,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책 제공
  - 연금 문제, 다중 채무, 악질 상법 등에 관한 법률 상담 기관 안내, 관련 도서 및 법령 안내

도서관과 함께하는 품격있는 삶

- 고령층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 고품격 인문학 강좌 제공
  - 품격을 높이는 삶을 위한 도서, 큰글자책, 오디오북, 강연 동영상 등의 장서 구축
  -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의료·복지, 치매예방, 웰다잉 등) 프로그램 운영
  - 모듈별, 레벨별 체계적인 리터러시 프로그램 마련
  - 자원 활동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품격이 있는 삶
  - 품격을 만드는 전문사서 양성 및 배치

2.4 장애인

2.4.1 장애인 문제 현황

장애인의 도서관 이동성 및 정보접근권 확보를 통한 알 권리 보장 미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장애인의 도서관 접근 및 이동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전국 공공도서관 1,236개 관 중에서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 인증을 취득한 도서관은 142개 관으로 전체의 11.48%에 그침
- 장애인의 자료이용 및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반 제공 미흡
  - 매년 출판되는 자료 중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음성도서, 점자도서, 수어영상도서 등)로의 변환율은 10% 정도에 불과함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단순히 편의 제공이 아닌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의 전환 필요

장애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 상황

- 공공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나 보조견의 동행 거부 등의 직·간접적 차별이 남아 있음
- 비장애인 중심의 공공도서관 시설 구축과 각종 장비(키오스크 등)는 태생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장치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없음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시설이 부족함

도서관의 다양한 장애인 서비스 부족

- 공공 및 장애인 도서관 방문 시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 부족과 독서 프로그램의 미비
-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종류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 부족
-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연계된 전국 1,236개 공공도서관의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이 미비함
- 점자자료, 확대도서, 녹음도서 등 실물 대체자료가 부족함

2.4.2 장애인 정책 제안

「도서관 법령」 개정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알 권리 보장

- 신규 공공도서관 건립 시 BF 인증 의무화 규정을 도서관 법령에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도서관 이동권 보장
- 정보접근권 향상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 강화 규정 신설
  - 도서관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납본제도 시행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의 확충과 장애인들의 웹접근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환경 구축
  -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연계된 대체자료의 이용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확대
- 광역단위의 장애인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 지역 내 장애인도서관의 기능 강화 관련 시설, 전담 인력 기준 등 법적 규정 및 지원체계 필요
  - 장애인도서관의 법령을 확대하여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법적 체계 및 지원 확대 필요

장애인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한 독서보조기기 확충 의무화

- 도서관 법령에 공공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의 시설요건 보강을 통한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장애 유형에 적합한 독서보조기기 구비의 의무화 규정 신설
  -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 점자프린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 S/W, 화면확대 S/W 및 H/W, 2차원바코드 음성 출력 S/W 및 H/W, 음성도서 재생 S/W 및 H/W,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 문서 인식 S/W 및 주변기기, 대형모니터, 음성인식 S/W, 점역 S/W, 전자 점자도서 재생 S/W, 확대경, 휴대폰 등
  - 청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 화상전화기, 자막수신기, 진동 신호 장치, 음성 증폭기 등
  - 지체장애인 보조공학기기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문자입력 S/W, 음성인식 S/W, 입력 보조 도구, 독서 보조 도구, 높낮이 조절 컴퓨터, 터치스크린 모니터 등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다변화

-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항목에 장애인 서비스 프로그램 평가지표 신설 및 공공도서관과 지역 내 장애인 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 서비스 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다변화 유도
- 장애인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별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 시행 제도화 필요
  -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수화통역사 배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참가자에게 배포되는 모든 인쇄물은 점자, 녹음 혹은 큰 활자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

장애인도서관의 확충 및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전담 사서 확충

- **현행 도서관 법령의 개정을 통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관 거점 단위의 공립 장애인도서관 조성 및 민간 장애인도서관 지원체계 구축**
  - 현재 전국에 소재한 50여 개 장애인도서관의 열악한 재정적 요인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유명무실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거점 장애인도서관 조성 및 민간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개발과 지원체계 제도화 필요
- **장애인 서비스 전담사서 제도 운영**
  - 광역대표도서관 및 개별 공공도서관들은 장애인과 관련된 도서관 서비스와 장애인을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 프로그램을 담당할 장애인 서비스 전담 사서를 지정하여 운영

2.5 어린이·청소년

2.5.1 어린이·청소년 문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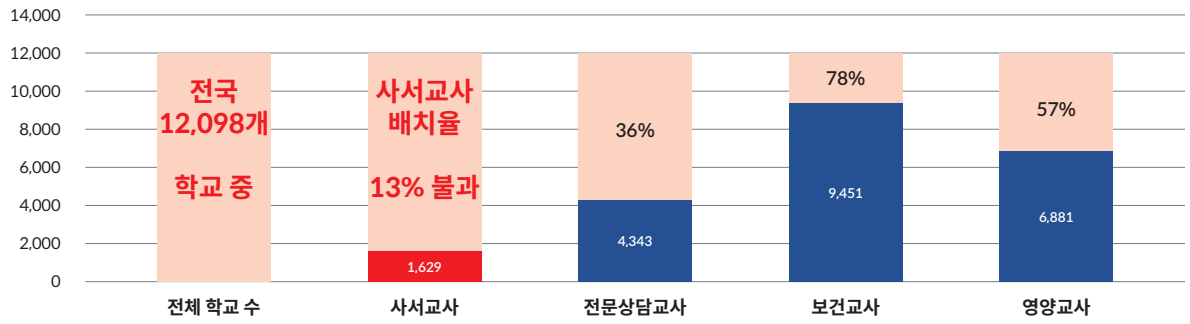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부작용 심화

- **어린이·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유튜브, 게임, 틱톡 등)**
  - 자극적인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로 어린이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의 저하를 초래
-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 심각(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128만 명 중 230,634명(18%)
  - 과의존 진단 초등 4년 65,127명, 중등 1년 90,730명, 고등 1년 74,777명으로 중학생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과의존 추세 뚜렷
- **미디어 오남용으로 인한 악영향 증가**
  - 각종 소셜미디어,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 정보과다(인포데믹) 현상 심화
  -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어린이·청소년의 균형 잡힌 사고력 성장 저해

문해력 저하에도 체계적 문해력 교육을 위한 공공재인 학교도서관 기반 미비

- **종이책을 디지털 책보다 더 자주 읽는 학생이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독해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 받음**
  - 한국경제, 종이책 자주 읽는 학생이 학업성취도 높다 (2022.07.24.)
  -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와 알파 세대의 경우 종이책을 중심으로 한 기초 문해력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의 정답률이 25.6%로 OECD 평균인 47.4%에 비해 현저히 낮음**
  - 학교 단위 문해력 교육 경험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
- **사서교사 배치율은 20% 미만으로, 배치율 50%를 넘는 타 비교과 교사와 대비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 선발은 유독 낮아 체계적 문해력 교육에 어려움이 있음**
  - 도 단위 소규모 학교의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는 상대적으로 더 부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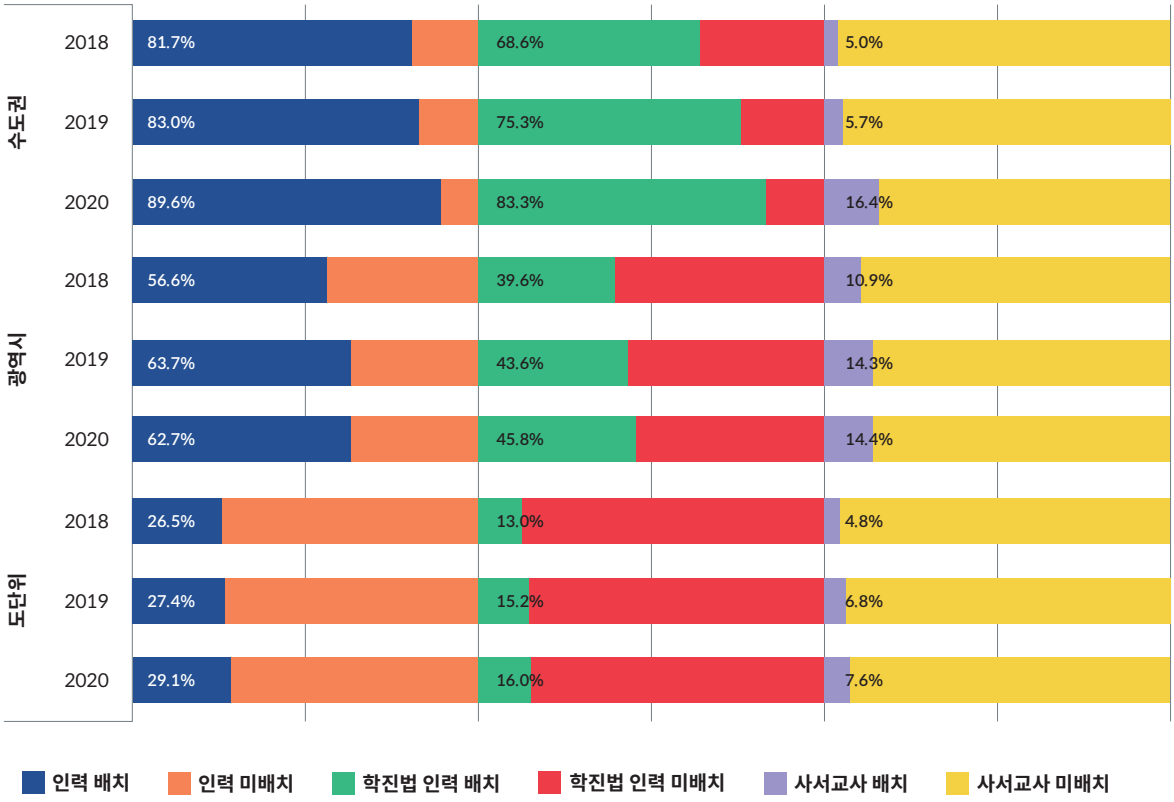
전체 학교 대비 비교과 교사별 배치현황



디지털 시대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공공재인 학교도서관,
그러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전문가인 사서교사는 매우 부족합니다!
타 비교과 교사 배치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 사서교사 확충이 절실합니다!

※ 출처 : 2023년 교육통계(교육통계서비스)
- 학교 수 : 유치원 제외 학교 수
- 교원 수 :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합 퇴직 및 강사 제외
- 비율 : 교과별 배치교원 수 / 학교 수

지역 특성별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율 추이



2.5.2 어린이·청소년 정책 제안

도서관을 이용한 어린이·청소년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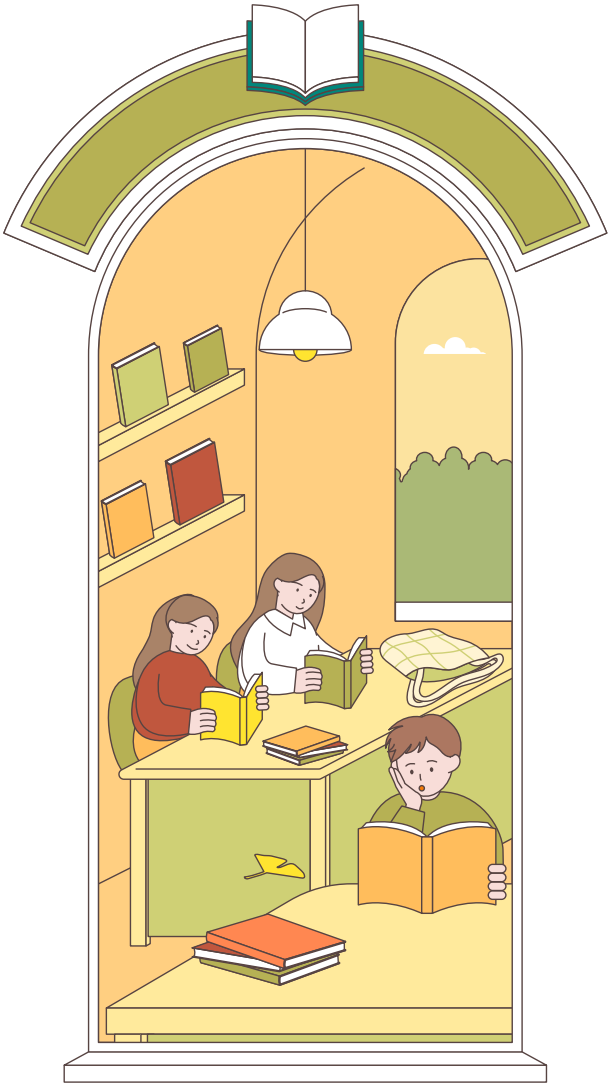
-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실습 프로그램 운영**
  - 자극적인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로 어린이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의 저하를 초래
- **공공도서관의 메이커 스페이스, 미디어 랩 등을 통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과 활용기회 확장**
  - 도서관의 디지털 기기와 장비를 활용한 창작과 협업, 공유의 기회 제공
- **어린이·청소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과 교육 제공**
  - 디지털 부작용 관련 독서 지도, 독서요법 및 디지털·AI 문해력 교육
- **학교도서관 기반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문해력 강화 독서교육 실시**
  - 어린이·청소년 성장 속도와 국가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문해력 향상 교육

누구나 기초 문해력과 디지털 문해력을 동시에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기회 제공

- **종이책 기반 기초 문해력을 책임지는 도서관의 매력적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 확산**
  - 문해력 교육 영역까지 사교육 시장에서 각광받는 현실에 비추어 종이책 중심 매력적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확산
  - 독서의 즐거움, 심리적 웰빙 등 인문학적 사유 능력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
- **디지털 문해력 함양을 위한 도서관의 디지털 미디어 센터화**
  - 도서관 이용자 대상 인공지능 구독료 지원 등 복합 문해 환경 적응의 기반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문해력 강화
  - 디지털 기기 활용을 기반으로 창의, 소통,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문제 해결 역량 교육 프로그램 확대
- **격차 없는 교육을 위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자원 투입 확대**
  - 사회적 공공재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캠페인 추진
  - 메이커스페이스와 미디어랩의 기능을 결합하여 휴식, 만남, 탐색, 창작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창의·체험 전용 공간 제공
  - 도서관 서비스의 수준을 결정짓는 전문인력인 사서교사와 사서 배치 확대
  - 복합적으로 격차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도서관 시설, 인력, 예산 집중 투입

3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 도서관 정책 개선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서관은 장서, 사서, 시설이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을 때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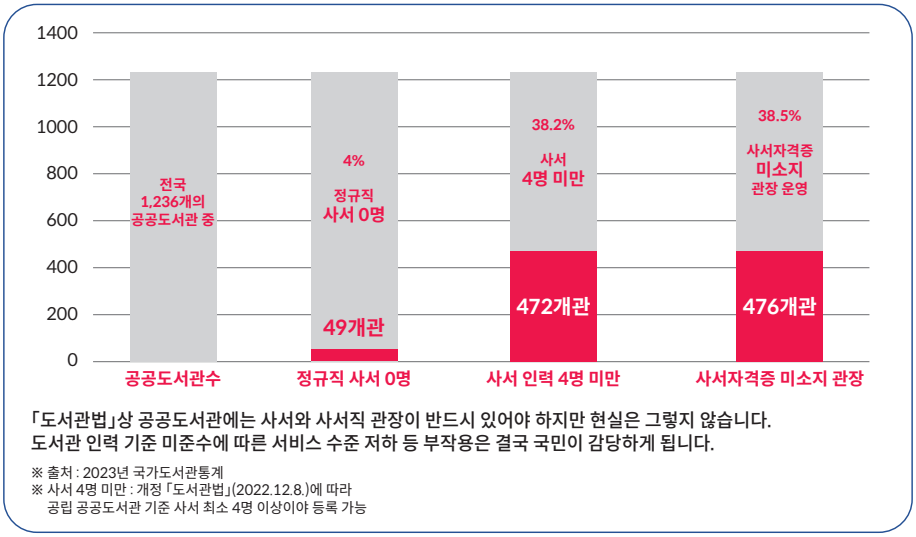
3.1 사서 확충 및 사서 인권 보장

3.1.1 문제 현황

도서관 사서 수의 부족과 열악한 처우

사서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업무 강도 부담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립·공공·학교·대학 도서관 수는 1만 3,523개 관에 달하지만 사서 수는 1만1천여 명 수준이며, 공공도서관 1,236곳 중 최소 사서 배치 기준 이하로 운영되는 곳이 664곳(53.7%), 현행 「도서관법」을 위반하여 사서자격증 미소지 관장이 운영하는 곳이 476개 관(38.5%)에 달함
- 현재 정규직 사서가 배치된 공공도서관의 수는 전체 공공도서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서 중 5회 이상 이직 경험자가 15.3%에 달하고 이직 사유 1순위는 계약만료(40.4%)로 나타나 사서의 고용 불안정성이 매우 높음
- 반면, 팬데믹 이후 사서 업무 범위는 자료수집 및 서고 정리, 이용자 서비스 제공, 도서관 프로그램 및 행사, 도서관 운영, 시스템 관리, 네트워킹 및 협력 등 전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평생교육 및 문화행사 지원, 비대면 서비스 제공, 타 부서 업무 지원 요구 등 추가적인 업무량과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에는 사서와 사서직 관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관 인력 기준 미준수에 따른 서비스 수준 저하 등 부작용은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됩니다.

※ 출처 : 2023년 국가도서관통계
※ 사서 4명 미만 : 개정 「도서관법」(2022.12.8.)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 기준 사서 최소 4명 이상이야 등록 가능

사서직의 열악한 처우와 인권 침해 사례 증가

- 사서직 공무원 수당은 1982년 이후 5급 이상 3만 원, 6급 이하 2만 원에 멈춰있어 타 특수업무수당이 5~8만 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액수임
- 서울시 공공도서관 고용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사서가 부당대우를 겪거나 업무로 인한 질병을 경험한 비율이 높으며, 이용객이나 방문객의 폭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번아웃을 빈번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사서들은 또한 편한 직업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조직 내외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음
- 사서 수의 부족과 업무 강도 부담, 사서직의 열악한 처우는 전문 사서의 사기를 저하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식정보접근권 보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전문 사서의 도서관 배치 확대와 사서직 처우 개선이 필요함

3.1.2 정책 제안

도서관 사서 확충 및 처우 개선

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 준수 및 사서 확충

- 시군별 공공도서관 사서 1명당 서비스 인구, 사서의 배치 기준을 규정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에 규정된 최소 기준의 현실화
- 학생들의 지적 소양과 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현재 도서관당 0.21명인 사서 교사 수를 늘려 모든 초·중등학교의 도서관에 필수로 배치

사서직 수당 현실화 기준 상향 조정 등 사서직 처우 개선

- 사서직 공무원 수당을 국회도서관 도서관 수당 등에 준하여 공무원 급수 구분 없이 일괄 10만원 인상 또는 최소한 타 특수업무수당에 맞추어 현실화하여(월 5만원, 정사서 소지자 가산금 지급) 전문직 사서의 자긍심 고취
- 공공도서관 사서직 관장 채용 기준 준수를 위한 정책적 지원
- 사서 고용의 질과 근로 환경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사서 권익 보호 조례 제정과 사서 인권 매뉴얼 제작, 인권 교육 확대 등을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동하여 실행
- 이용자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개선할 수 있는 사서 업무 프로세스 정의, 업무 중지권,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관리 등 사서 보호장치 마련

사서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 디지털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역할 변화 요구에 따라 사서가 가져야 할 필수 업무 역량도 다양화되고 있음
- 도서관 디지털 전환과 AI 서비스를 위해 한국도서관협회, 국립중앙도서관, 광역대표도서관 등에서 사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예산,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함

3.2 도서관의 지적 자유 보장

3.2.1 문제 현황

도서관의 지적 자유 침해사례 발생

특정 단체의 도서관 장서 열람 제한 및 폐기 요구

- 특정 단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선정·보급한 '나다움 어린이책'을 비롯한 일부 도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금서 목록을 만들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요구함
- 이러한 외압은 「도서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국민의 지적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공적 시설로 존재하는 도서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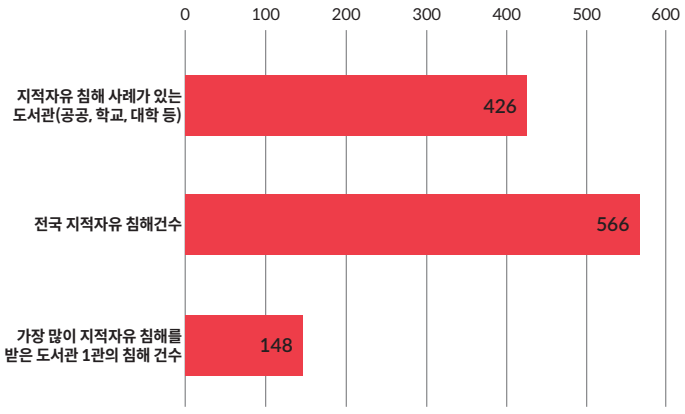
3.2.2 정책 제안

도서관과 사서의 지적 권리 보장

모든 자료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용 보장

- 도서관은 정보와 계몽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열을 거부해야 하며 정치적 판단없이 중립적이어야 함
- 사서의 수서권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나이, 교육수준, 사회적 지위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선정·수집할 수 있는 도서관과 사서의 지적 권리 성문화 필요

2023년 '도서관 현장의 지적자유 침해사례 파악 설문조사 결과'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복수응답)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사례 조사 결과, 도서관 및 사서들에게 지적자유 침해 강요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모든 자료에 대해 공평하게 접근·이용해야 할 이용자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 출처 : 2023년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현장의 지적자유 침해사례 파악 설문조사 결과'
※ 조사 시점 : 2021~2023년(3년간)
※ 지적자유 침해 건수 : 공문 및 성명서, 홈페이지 건의, 전화민원 등

3.3 도서관 확충 및 도서관 체제 개선

3.3.1 문제 현황

열악한 도서관 인프라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공공도서관 인프라 규모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1,236관으로 미국(9,207관), 독일(6,748관), 일본(3,305관), 호주(1,706관)에 비해 양적으로 적은 수치를 나타냄
- 1관당 인구수도 우리나라는 41,617명으로 미국(35,687명), 독일(12,335명), 일본(38,322명)과 비교하면 많은 편으로 더 많은 공공도서관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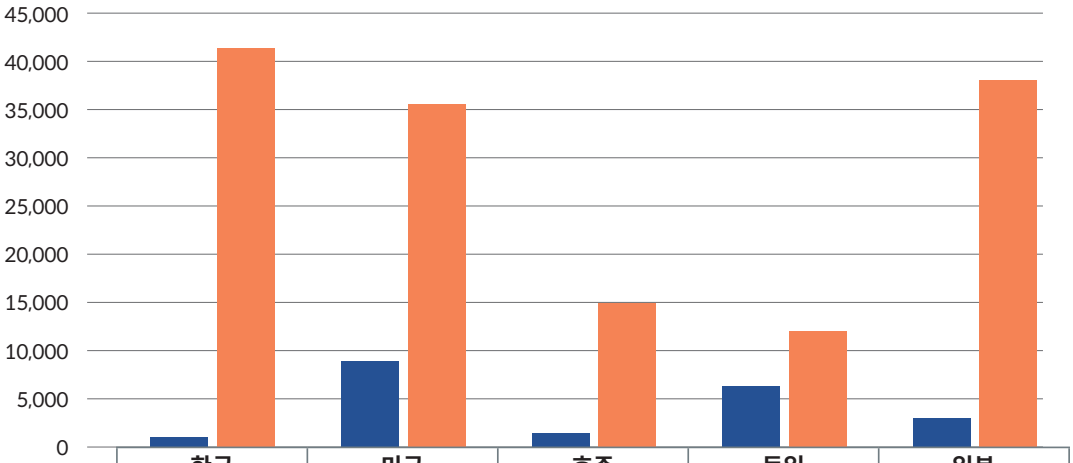
지역별 도서관 인프라 불균형 심화

- '도세권'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도서관 인프라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해지고 있으나 공공도서관 인프라는 시·군·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
- 지역별 공공도서관 상호 간에 인프라와 서비스에 격차가 존재하면 주민의 접근, 이용에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는 정보격차 및 문화복지 격차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 설립 및 운영 근거 부재

- 도서관법 제41조에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설치·운영 관련 법제도 근거가 없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주요국 공공도서관 수 및 1관당 인구수



	한국	미국	호주	독일	일본
공공도서관 수	1,236	9,207	1,706	6,748	3,305
1관당 인구 수	41,617	35,687	15,210	12,335	38,322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공공도서관 수가 아직도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1관당 감당해야 하는 인구수가 높아 서비스 질적 수준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출처 : 2023년 국가도서관통계

공공도서관의 민간 위탁 운영 및 작은도서관 부실 운영 사례 증가

공공도서관의 민간 위탁 운영 전환 사례 증가

- 2022년 기준, 공공도서관 250곳(전년 대비 6곳 증가), 작은도서관 521곳(전년 대비 16곳 증가)이 민간 위탁 운영 중임
- 위탁 운영 비율이 높은 시도는 서울이 1위였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이 1%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지자체가 도서관 위탁 운영 확대 방안에 몰두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위탁도서관의 양적 확대와 함께 위탁도서관 운영 부실, 일관성 없는 도서관 담당 부서, 도서관 서비스 전반의 질적 수준 하향, 사서의 전문성 신장 기회 부족, 사서의 근무여건 악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기관 위탁 계약 만료로 인해 도서관 재위탁을 경험한 응답자 중 51.3%가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작은도서관의 부실 운영 증가

- 2022년 기준, 전국 작은도서관의 43.4%가 운영 부실에 해당하는 D·F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대출 실적이 단 한 권도 없는 곳이 전체의 20.7%인 1,430곳, 직원이 없는 작은도서관이 2,620곳, 도서 충원이 없는 작은도서관은 1,003곳, 도서구입비가 없는 작은도서관은 1,833곳으로 나타남
- 이는 지역사회에서 작은도서관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인력 및 예산 지원 감소,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미비에 원인이 있음

3.3.2 정책 제안

사회적 도서관으로서의 인프라 내실화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도서관 인프라 확충

- 도서관 입지계수와 1관당 서비스 대상 인구를 기반으로 지역별 도서관 확충계획 수립 및 실행을 통한 도서관 접근성 격차 해소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산하 도서관 정책 담당 부서 설치 및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도서관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사서 인력 배치를 통한 정책적 노력 추진
- 광역대표도서관 설치 완료(충북, 강원 등), 지역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통한 국민의 문화 활동과 평생교육 증진, 기본권 신장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도서관 운영의 정상화 및 전문·특수도서관 운영 법제도 근거 마련

위탁도서관 운영 정상화

- 위탁도서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탁도서관 가이드라인 개정 및 도서관 평가, 재위탁 등과의 연계 강조를 통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강화

전문·특수도서관 운영 관련 법제도 근거 마련

-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진흥법 설치를 통한 법제도 근거 마련으로 도서관 운영 효율화

학교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운영 지원 확대

- 국가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정책과 연계한 학교도서관 사서 교사 확충, 대학도서관 운영 지침 현실화(자료폐기 기준 마련 등) 등 관련 제도 개선

지속 가능한 미래 지원을 위한 도서관 ESG 경영

도서관 그린 경영체제 확립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에서는 UN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SDGs)"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전략을 제안하고 각국의 도서관 지속 가능성 사례를 수집·공개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그린 경영체제를 도입하여 친환경도서관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책임경영을 확산하고 있음
- 도서관 그린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도서관 환경경영 정책, 규정을 마련하고 친환경도서관 업무환경 구축(비대면 업무 지원, 친환경 건물 및 설비 구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필요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지역협력, 문화적 포용과 이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와 지역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 지원 필요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도서관 복지 실현

-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미래를 이끌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고,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며, 공동체 회복을 돕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요함
-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실태조사 실시 및 이해를 바탕으로 세분된 서비스 정책 수립 필요
-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접근 및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사회통합사업운영과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으로 도서관의 사회적 포용 실현

현 정부의 도서관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2024~2028)
- 4개 정책목표, 12개 핵심과제, 24개 추진과제

정책목표 및 핵심과제별 주요 추진 내용

비전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

핵심가치

따뜻한 **동행** | 공동체 **성장** |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목표	핵심과제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 **모두의 도서관**	1. 세계시민성을 지향하는 도서관서비스 2. 국민 체감형 지식정보서비스 확대 3.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서비스
공동체 활력, **연대·협력 플랫폼**	4. K-도서관 문화 랜드마크화 5. 지역 활력을 높이는 특화 서비스 제공 6. 경계를 넘는 지식문화기관 연대·협력
국가 경쟁력 강화, **K-지식자원 보고**	7. 국가지식문화유산의 체계적 축적 8. 지역 실용자원의 공동수집·보존 9. 가치창출형 지식자원 공유·연계
미래를 위한 준비, **도서관 혁신**	10. 도서관 디지털 혁신 11. 도서관 전문인력 역량 강화 12. 도서관 정책 기반 강화

정책목표 1.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 모두의 도서관

핵심과제 1. 세계시민성을 지향하는 도서관서비스

- (창의·공감을 위한 인문역량 제고) 북스타트, 독서공동체 지원 등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 인문가치 확산 및 문해교육을 위한 다양한 문화·학습·체험 프로그램 강화
- (디지털 일상 향유 역량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 메이커 프로그램 및 창작 교육 과정 등 다양한 디지털 창작·협업 프로그램 확대

핵심과제 2. 국민 체감형 지식정보서비스 확대

- (공공정보서비스 접근성 향상) 국립도서관, 전문도서관, 광역대표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공공정책 및 학술연구정보 공유체계 강화,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운영
- (교육·학술정보서비스 확대) 교과수업 지원 및 독서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학교도서관 협력망(독서로) 운영, 대학도서관의 강의 및 수업·연구활동 지원, 종합목록·상호대차 등 협력망 구축·운영,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

핵심과제 3.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서비스

-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제작 확대, 장애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 활동, 청년·중장년·고령자 등 위기요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모국어 자료 서비스,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 (특수환경 도서관서비스 확대) 장병을 위한 병영도서관 환경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수형자를 위한 교정시설 도서관의 시설 환경 개선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환자·보호자를 위한 병원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정책목표 2. 공동체 활력, 연대·협력 플랫폼

핵심과제 4. K-도서관 문화 랜드마크화

- (지역 매력을 품은 명소 도서관 확충)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을 통한 도서관 중심 문화클러스터 조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 지속 확충
- (일상 속 체류형 도서관 환경 조성) 체류형 독서문화 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창의·협력 공간으로서의 대학도서관 환경 조성, 감염병·재난 상황 대비 도서관 안전·위생 환경 구축,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무장애 공간 확대 등

핵심과제 5. 지역 활력을 높이는 특화 서비스 제공

- (지역공동체를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로컬 콘텐츠 특화도서관 육성·지원, 세대 공감 프로그램 보급·확산 및 세대공감센터 조성 등
- (사람과 마을을 잇는 지역아카이브 구축) 마을기록화 등 도서관 중심의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마을 이야기 등 문화매개자를 활용한 지역 스토리텔링 개발 및 추진

핵심과제 6. 경계를 넘는 지식문화기관 연대·협력

-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연계하여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 제고를 위한 도서관 활력 지수(L-ESG) 개발 및 적용, 지역사회 수요 기반의 도서관 리빙랩 운영 및 체계화 등
- (도서관 융합서비스 확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학관, 과학관, 기록관 등 지식문화기관과의 연대서비스 발굴 및 협력사업 추진, 지역도서관-출판-서점 간 지속 가능한 협력모델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

정책목표 3. 국가 경쟁력 강화, K-지식자원 보고

핵심과제 7. 국가지식문화유산의 체계적 축적

- (한국자료의 포괄적 수집) 국가 장서 확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 수집 확대, 소장자료 디지털화, 법·제도 정비, 출판·유통기관과 협업, 공공간행물 수집 확대, 전담기관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물 수집체계 강화, RISS·KOCW를 통한 교육·학술자료 수집 확대, 고문헌·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구술자료 등 발굴·수집 확대
- (후대를 위한 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국가문헌 보존관 건립, IFLA 보존복원(PAC) 한국 센터 운영을 통한 보존·복원의 체계적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핵심과제 8. 지역 실용자원의 공동수집·보존

- (지역자료 수집력 강화) 광역-기초 간 협력을 통한 지역자료 수집 및 보존체계 구축, 광역대표도서관에 지역자료 납본·보존센터 설치·운영, 온라인자료 수집 및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보존전략 기본 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 (공동보존서고 구축·운영 내실화) 자치단체별 공동보존서고 구축·운영 지침 마련, 로봇 활용 등 스마트 서고의 단계적 구현

핵심과제 9. 가치창출형 지식자원 공유·연계

- (개방형 콘텐츠 발굴 및 활용) 공유·개방형 저작물의 지속적 발굴 및 관리체계 확립, 법·제도 개선, OA(Open Access) 콘텐츠 유통을 위한 기관 리포지터리 구축·운영 확대, 국내 주요기관 OA 공동협의체 활성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을 통한 국가자료 통합 활용, 대학 라이선스 및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도서관 데이터 공유 및 연계) 연구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마련, 도서관 데이터의 관리·활용체계 확립, K-콘텐츠 창작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도서관 데이터 연계 활용성 강화

정책목표 4. 미래를 위한 준비, 도서관 혁신

핵심과제 10. 도서관 디지털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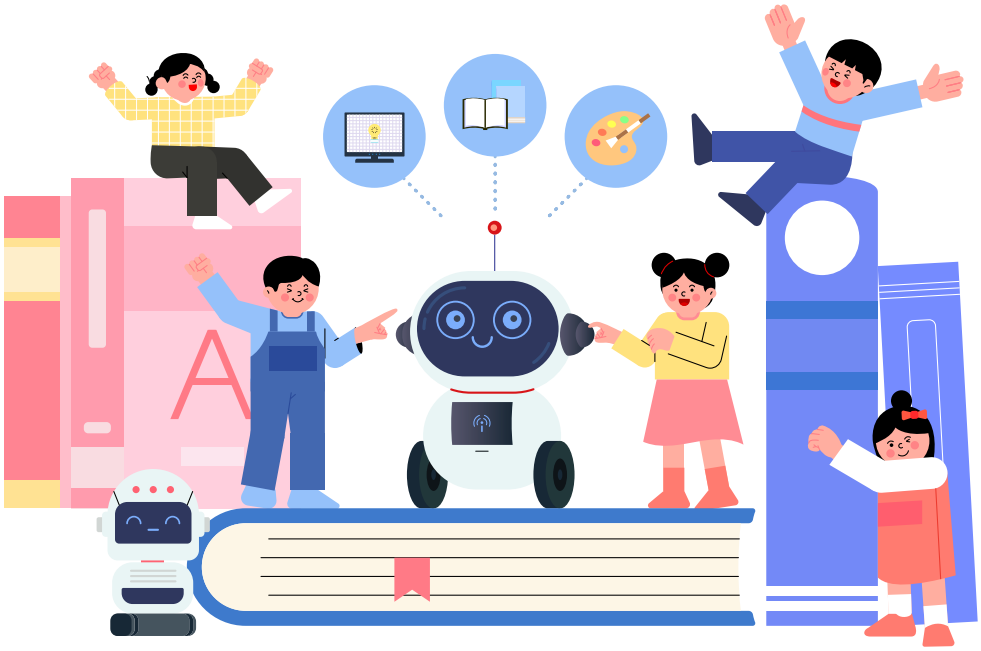
- (도서관 업무 환경의 디지털 전환)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해 전국도서관통계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향상, 도서관 정보나루 및 사서 의사결정서비스(솔로몬) 고도화, AI·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 업무 발굴, 지능형 업무지원시스템 적용 검토
- (신기술 융합형 도서관 서비스 확대)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VR·AR·MR 등 실감형 콘텐츠, 메타버스 서비스, AI 활용 도서관 서비스(고문헌 텍스트 번역·분석, 지능형 검색 및 맞춤형 추천, 챗봇 등) 확대

핵심과제 11. 도서관 전문인력 역량 강화

- (사서 전문성 개선·강화)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및 최저이수 학점제 도입, 1급 정사서 자격요건 강화, 사서 재교육 의무화 및 경력단계별 직무교육 체계 구축, 맞춤형 시사 직무교육 전문화
- (미래 전문사서 양성체계 재구축) 사서의 핵심역량 및 전문역량 모델 설계, 도서관장 자격요건 및 역량 모델 개발, 데이터 전문사서 시범 양성(100명)

핵심과제 12. 도서관 정책 기반 강화

- (지역 주도형 도서관 정책체계 확립) 지역도서관 정책 모델 개발 및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공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별 공공도서관 등록·평가 업무 추진체계 마련
-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부처 간, 중앙-지방 간 도서관 협력체계 강화, 도서관계 국제협력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국제 교류 강화, ODA 사업 지속적 추진



도서관 문제, 해결할수록 행복한 도서관이 가까워집니다!

도서관분야 수장 빈자리, 언제 채워지나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국립중앙도서관장 지난해 내내 공석 … 문체부 "인사 절차 진행 중" 내일신문 / 2024-01-18

'사라진' 도서관 정책 책임자들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국립중앙도서관 관장 1년 이상 '공석' / 사서 인력 확충·작은도서관 예산 확보 등 산적한 현안에도 "적격자 없음" 주간경향 / 2024-02-26

▶ 제4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24-2028)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1년 11개월 째 공석, 우리나라 대표 국립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은 1년 7개월 째 공석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직제 축소' 추진 논란 - 도서관법 따른 국가대표도서관 국장급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내일신문 / 2023-12-21

▶ 국가문헌 디지털화를 책임지는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마저 폐지되었습니다!

오늘 '도서관의 날' 첫 법정 기념일…"사서 수당은 40년간 동결" 뉴시스 / 2023-04-12

교원 수당 인상, 보건·영양·사서·상담만 쏙 뺐다 뉴시스 / 2023-12-27

▶ 사서수당 2~3만원의 장기간 동결, 타 특수업무수당에 비해서 너무나도 낮습니다!

도서관장은 사서직인데…구로구엔 퇴직 공무원·낙하산 바글 - 서울 구로구립도서관장 10명 중 8명 자격증 없어 한겨레 / 2023-04-27

인천시 또 '사서자격증 없는 관장' 임명 - 미추홀도서관 행정직 출신 '인사' / 협회·의회 지적에도 개선의지 없어 경인일보 / 2023-12-25

▶ 「도서관법」상 사서 배치 / 사서직관장 배치 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서도 감정노동자"…업무강도 늘었지만 처우는 제자리 -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업무 대폭 늘어 오버타임 … 노컷뉴스 / 2023-05-11

책만 빌려주면 끝? 도서관 모든 일이 그들 몫 - '꿀 보직'은 선입견, 도서관 수 늘었는데 인력은 줄어…팬데믹 이후 업무강도 더 높아져 비즈한국 / 2023-05-19

▶ 폭력, 폭언이 가득한 감정노동, 비정규직, 낮은 임금 … 사서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성교육·성평등 어린이책 빼라" 도넘은 '도서검열' 민원 경향신문 / 2023-07-26

성평등·성교육 책 '금서' 지정?…"검열이자 반헌법적 행위" 한겨레 / 2023-08-02

▶ 도서관과 사서가 국민들의 지적자유를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총 "학생들 문해력 최하위… 사서교사 정원 확대해야" 뉴스클레임 / 2022-08-03

사서교사 없는 학교도서관 교육은 '공염불' 국제신문 / 2023-05-23

▶ 우리 아이 학교도서관에는 독서교육 전문가인 사서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도서관협회 소개

성격 및 창립

- 전국 도서관 및 사서가 회원인 사회단체법인
- 국고보조금수혜기관(법정단체)
-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 창립 : 1945년 8월 30일

설립 목적

- 「도서관법」 제18조에 의거 도서관의 발전과 상호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외의 상호협력 및 국민과 도서관의 공동이익 증진

주요 사업

- 도서관 문화발전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현안문제 대응
- 《도서관문화》 등 기관지 및 도서관 관련 각종 도서 등의 간행
-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도서관 확충과 운영 수준 향상에 관한 컨설팅
- 도서관 권리와 도서관인 윤리 향상
- 도서관주간 등 도서관과 독서운동, 인문학진흥사업 추진
- 도서관 관련 전문도서관 설치와 운영
- 도서관 관련 통계의 관리
- 한국도서관회관의 건립·운영
- 국내외 도서관 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 한국도서관상 등 표창 등에 관한 사업
- 정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이나 위탁받은 도서관사업
- 도서관운영을 위한 각종 기준 및 표준 등의 제정과 자료 선정 도구의 작성·보급
- 국민의 정보와 디지털 활용 역량강화 지원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활성화 관련 사업
-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2022년 전국 **공공도서관**
연간 방문자 1억 7,500만명!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는 전문자격을 갖춘
사서와 사서직 관장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차별없는 **학교교육,**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도서관,**
국민의 **지식문화플랫폼**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사회의 주요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지적자유,
도서관이 지켜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도서관 정책!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화기반시설은 바로 도서관입니다.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도서관에서
누구나 함께 읽고, 쓰고, 토론하고, 만나고, 배우고,
경험하고, 창조하고, 놀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도서관 정책을 공약해주십시오!

공공도서관 사서가 행복해야
이용자들도 행복합니다!

도서관에서의 **장애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장애인도서관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국가 R&D 발전,
전문도서관법 제정에
달려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도서관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대학도서관은 그 나라의 **연구와 교육 역량의 결정체,**
조속한 **대학도서관진흥법** 등 관련 **법령 정비**와
실질적인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한국도서관협회

주소 및 연락처 (우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02-535-4868 **팩스** 02-535-5616 **이메일** w3master@kla.kr **홈페이지** http://www.kla.kr